



QR코드를
스캔하세요

1차, 2차 이벤트에 보내준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막차 이벤트 진행!!!

모바일 고양소식지의 새이름 **고양원픽**
고양원픽 공유하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맛한 소식과 정보를 원해?

모바일로 꼭해!

고양원픽

G O Y A N G O N E P I C K



고양원픽.kr



참여 방법

- ① 「고양원픽」 사이트에 접속하세요(고양원픽.kr / gy1pick.kr)
- ② 메인화면의 이벤트 시안을 클릭, 이벤트 게시글을 본인의 SNS로 공유하세요 ★ 해시태그(#고양원픽, #고양소식, #고양시) 입력 필수 ★
- ③ 공유한 본인의 SNS 게시글 URL을
「고양원픽」 독자마당 → 이벤트 참여 코너에 등록해주세요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에 공유한 URL만 참여가능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응모 기간

2022. 8. 8.(월) ~ 8. 29.(월)

발표

2022. 9. 1.(목)

상품

스타벅스 기프트콘
아메리카노 2잔
80명



고양고양이
인형
20명

※ 당첨자는 추첨 후 고양원픽 및 고양시 SNS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GOYANG CITY MAGAZINE

2022 AUGUST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소식지
<고양원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1차, 2차 이벤트에 보내준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막차 이벤트 진행!!!

모바일 고양소식지의 새이름 **고양원픽**
고양원픽 공유하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맛한 소식과 정보를 원해?

모바일로 꼭해!

고양원픽

G O Y A N G O N E P I C K



고양원픽.kr



참여 방법

- ① 「고양원픽」 사이트에 접속하세요(고양원픽.kr / gy1pick.kr)
- ② 메인화면의 이벤트 시안을 클릭, 이벤트 게시글을 본인의 SNS로 공유하세요 ★ 해시태그(#고양원픽, #고양소식, #고양시) 입력 필수 ★
- ③ 공유한 본인의 SNS 게시글 URL을
「고양원픽」 독자마당 → 이벤트 참여 코너에 등록해주세요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에 공유한 URL만 참여가능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응모 기간

2022. 8. 8.(월) ~ 8. 29.(월)

발표

2022. 9. 1.(목)

상품

스타벅스 기프트콘
아메리카노 2잔
80명



고양고양이
인형
20명

※ 당첨자는 추첨 후 고양원픽 및 고양시 SNS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COVER STORY

「노래하는 분수대」

8월호 표지에는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일산호수
공원 노래하는 분수대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지난 2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춰 섰던 음악분수는
올 여름부터 다시 시원한 물줄기를 쏘아 올리게 되
었습니다. 일산호수공원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가 여름밤의 열기를 유쾌하
게 식혀줍니다. 10월까지 운영 예정인 '노래하는 분
수대'.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이달의 꽃

수국

“
혼자서 여름을 앓던 내 안에도 오늘은
푸르디 푸른 한 다발의 희망이 피네

수국처럼 둥근 웃음
내 이웃들의 웃음이 꽃무더기로 쏟아지네

- 이해인 <수국을 보며> 中 -

아기 얼굴 만한 큰 꽃송이가 발길을 붙잡는다. 우리가
여름철에 시원한 물을 찾듯이, 수국 또한 물을 좋아하
니 과연 여름 꽃이라 할 만하다. 수국이 멋지게 피는
곳은 땀별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만들어낸다. 색색의
매력을 뽐내는 수국을 8월의 꽃으로 소개한다.

이름	수국, Bigleaf hydrangea, 水菊
학명	Hydrangea macrophylla
개화시기	6~8월
꽃말	진심, 변덕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원산지	중국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소식지
<고양원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우산 두 개의 발걸음

7월 11일 오후 5시경, 덕양구 행신동 무원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며 세찬 비를 뿌렸다. 미처 예상치 못한 학생들은 가방을 우산 삼아 비를 피해 달렸다. 분주한 틈새로 잠시 멈춰 있던 우산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여 빗방울이 새어들까, 걸음을 재촉하는 파란색 점멸등에도 속도는 같았다. 하나의 우산 속에는 두 개의 발걸음이 함께였다.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은형 학생이 비를 맞고 있는 어느 할머니를 위해 기꺼이 한쪽 어깨를 내어준 것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우산 하나로 굵은 빗줄기를 피하며 보폭을 맞춰 한참을 걸었다. 거리에서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주은형 학생은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망설임 없이 도와야 한다는 것도 할머니의 가르침이었다. 주은형 학생의 선행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한 학생이 할머니께 말을 걸더니, 함께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더라고요. 학생은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도 한참을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시다.”

시민은 직접 촬영한 짧은 영상을 한 방송사에 보냈다. “꼭 학생을 찾아 칭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방송사는 영상 속 주인공을 찾아냈다. 주은형 학생이었다. 무원고등학교는 주은형 학생에게 선행상을 수여했다. 학교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에 큰 힘을 얻었다. 갈수록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이라지만, 아직은 살아볼 만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주은형 학생이 참 고맙다.

※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주은형 학생의 선행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YTN 뉴스

‘역사의 꽃이 피었습니다’ 코너가 이번 호는 ‘미담이 꽃피는 고양’으로 대체됩니다.



고양소식
오디오북



고양소식
전자책

표지 모델을 모집합니다!

<고양소식>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입니다.

고양시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사연을 제보해주세요.
당첨된 분은 사연과 함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공간에서 표지 사진을 담아 드립니다.
당첨자에 한하여 고양페이 5만원을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사연,
원하는 촬영 장소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gysosik@naver.com

발행인 고양시장 이동환 편집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에디터 홍보기획팀장 박현각, 주무관 윤정로
편집위원 김민정, 김은정, 노정민, 오문석, 윤재진,
이경현, 이암중, 임태성, 정동일, 정현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홈페이지 gy1pick.kr
이메일 gysosik@naver.com
기획·디자인 웨스트크(주)
발행일 2022년 8월 1일

04 슬기로운 고양생활

녹색도시 고양의 슬기로운 자전거 생활

08 행사 특특

2023학년도 고양특례시 대입수시박람회 다시보기

10 고양 꽃피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고양툰

노후 간판 정비

14 특집 광복절

그날의 기록 끝없는 독립운동... 해방 그리고 분단

18 은빛바람

가원시니어도서관

22 피어나라 청춘아

28청춘창업소 입주 기업 인터뷰

24 고양여성공감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26 해피투게더

수제품 직거래장터 '하마마켓'

28 플레이 온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시원한 짜릿함

30 고양 핫스팟

박물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여름방학

32 고양생활팁

Safe, Save, Smart! 여름철 지구를 지켜요

34 생생정보

러브버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36 헬스플러스

‘살모넬라균 감염’을 조심하세요!

38 건강돌보기

‘원숭이두창’ 제대로 알기

40 추천IN고양

도서관으로 떠나는 여름 북캉스

44 문화공감

8월의 문화 바캉스

46 고양게시판

시정, 유관기관, 의정 소식

48 독자문예마당

엄마의 ‘아리랑’

49 독자소리함

독자 후기 및 고양 사랑방

녹색도시 고양의 슬기로운 자전거 생활

고양특례시는 자전거 천국이다. 도시 곳곳 촘촘하게 연결된 424km의 자전거 길을 입맛대로 골라 타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름다운 풍광과 저마다의 문화적 가치를 품은 16개의 자전거 코스도 매력적이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누군가는 지금도 땀뻘 페달을 밟고 있다.



한 바퀴

424km, 16개 코스를 달리는 즐거운 자전거 생활

물길을 벗 삼아 유유자적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공릉천과 창릉천은 검증된 라이딩 맛집이다. 경의선 철길 따라 펼쳐진 자전거 길, 행주산성과 일산호수공원, 킨텍스 등 고양의 대표 명소와 이어지는 코스도 빼놓을 수 없다. 언덕이 많지 않고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이뤄진 고양특례시는 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 라이더들에게도 사랑받는 ‘자전거 친화도시’임이 분명하다.

424km의 자전거 길이 짜임새 있게 조성됐다. 특히, 온전히 자전거만을 위해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안전까지 싣고 달릴 수 있다. 두 바퀴로 만끽하는 라이딩에 든든한 벗이 되어줄

‘고양특례시 자전거 지도’를 활용한다면 즐거움은 두 배가 된다. 지도에는 자전거를 타며 고양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16개의 코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한 곳에는 현장 사진을 실어 진행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안전에 유의해야 할 곳, 공사가 진행 중인 곳 등도 세심하게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 자전거 교통 준수 사항이나 올바른 통행 방법, 자전거 수신회 요령과 사고 대처 노하우 등 주행에 도움되는 실용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어 안전한 라이딩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한다. 자전거 지도는 고양특례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두 바퀴

안전교육부터 시민보험까지, 튼튼한 자전거 생활

서울에 따릉이가 있다면 고양에는 ‘타조(TAZO)’가 있다. 타조는 시민의 튼튼한 발을 자처하고 있다. GPS 기반의 스마트한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대여가 쉽고, 반납 역시 정해진 위치 없이 원하는 장소에 가능하다는 것이 타조의 장점이다.

슬기로운 자전거 생활에 있어 안전은 필수다. 고양에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장소는 고양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자전거 안전 교육장’이다. 이곳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이 이뤄진다. 이론과 실기로 구성된 교육은 숙련도에 따른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도 운영되고 있다.

고양 시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자전거 보험’도 있다. 가입 절차에 대한 궁금증은 접어두자. 이미 고양특례시 시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다.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진단·입원비, 배상·벌금 등을 보장하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주)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1899-7751)로 연락하면 된다.

자전거 번호 등록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요!



고양특례시에서는 자전거에 나만의 번호판을 달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고 자전거 등록을 하면 잠재적 범죄심리가 억제되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자전거를 분실할 경우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주소지 관할 지구대나 치안센터를 방문해보자. 소유한 자전거의 기본적인 특징과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적는 등록카드를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유등록번호가 새겨진 자전거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점검 받아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근린공원 등을 순회한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브레이크 오일, 공기압, 기어 변속 등 기본 점검과 핸들, 안장 조절 등 안전운행을 위한 간단 조정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타이어와 체인 교체 등은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11월까지 고양특례시 곳곳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만날 수 있다.

순회 일정
확인하기



세 바퀴

전 세계 라이더와 함께하는 글로벌한 자전거 생활

올 여름, 전 세계 라이더들이 고양을 향해 페달을 밟는다. 앞서 7월 16일에는 ‘킹 오브 트랙(King of Track)’이라는 도심형 자전거대회가 일산문화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킹 오브 트랙은 차량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해 도심구간을 반복해 달리는 경기로, 자전거 퍼레이드와 안전캠페인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오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대회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을 무대로 펼쳐진다. 투르 드 디엠지는 2016년부터 접경지역의 활력과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고양에서 개막해 인천 강화, 강원도 고성 등을 자전거로 달리게 된다.

달리면 달릴수록 건강해지는 삶과 밟으면 밟을수록 깨끗해지는 환경. 고양의 자전거와 함께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향해 힘차게 달린다.



2023학년도 고양특례시 대입수시박람회

일산 킨텍스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7월 16일, ‘2023학년도 고양특례시 대입수시박람회’가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현장을 찾은 이들은 대학 수시모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보를 통해 다가올 내일의 희망을 공유했다.

당신의 **비** 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전국 75개 대학 참여, 대학별 무료 상담 진행

지난 2년간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2019년 첫 개최 후 코로나19로 부침을 겪었지만, 올해 다시 대면 행사로 개최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고양특례시를 찾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수험생 적성에 맞는 진로진학 상담부터 수시모집 정보, 예비 수험생 대상 진로희망 학과 탐색, 선제적 진로 탐색 등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됐다. 대학 부스에서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각 부스 앞에 마련된 태블릿 PC를 통해 신청, 순서대로 1:1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상담 행렬이 길어지면 대학 관계자들은 대기자들에게 홍보 책자를 나눠주며 학교 자랑에 열을 올렸다.

올해는 ▲수도권 42개교, ▲충청권 25개교, ▲강원권 3개교, ▲전라권 2개교, ▲경상권 3개교 등 전국 75개 대학이 함께했다. 대학별 부스와 함께 대학생 멘토링존도 운영됐다. 고양특례시 출신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생멘토단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멘토링을 진행했다. 총 4개의 입시 특강도 펼쳐졌다. 1부 수시 지원 전략 총론, 2부 면접 대비, 3부 자기소개서 작성, 4부 의학 계열 지원 전략 등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는 300명의 사전 접수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대입수시박람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Mini Interview



전영준 (가좌고, 일산서구 가좌동)

이번 대입수시박람회를 통해 여러 대학의 수시모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수험생들 모두 남은 기간 잘 준비해 꼭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은 (농곡고, 덕양구 농곡동)

그동안 대입과 관련해 모르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꼭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방문교육도, 취학준비도 고양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해요!

출신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족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다. 이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서비스와 취학준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27
정원빌딩 4층(정발산동)
문의 ☎ 031-938-9801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 필수다. 여러 기관에서 이뤄지는 집합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 공교롭게도 사는 곳과 교육장소 간의 거리가 멀어 꾸준히 공부하기 힘든 다문화 가족도 있게 마련이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

녀(만 24세 미만)는 생활 언어를 익히고 어휘와 문법, 문화 등 ‘한국어 교육’을 단계별로 받을 수 있다. 또, 언어와 문화 차이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민자들에게는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만 3세~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다면 ‘자녀 생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교사들이 일대일 수업을 진행한다.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Mini Interview

왕진페이
[일산서구 가좌동,
중국 출신]

지난해 10월 한국에 들어와 11월부터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 기초 공부는 물론이고, 실제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국어까지 센터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지도해주십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준비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임정숙
[한국어방문지도사]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어느덧 11년째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다문화가족이 한국어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도록 어휘와 문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중입니다. 은행, 병원 등에도 동행하면서 생활언어 습득도 돕고 있어요. 센터에서 교육 받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를 빠르게 익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응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 공부 지원하는 ‘다배움’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취학준비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다배움’을 이용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7~8세 아동이 우선 모집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교육이 이뤄진다. 한 과정당 4개월간 운영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종결평가를 통해 재신청도 할 수 있다.

1회당 60분씩 진행되는 수업은 한글 25분, 숫자 25분, EBS 동영상 활용한 파닉스(phonics)수업 7분, 활동지 검토 및 확인 학습 3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한 교사당 5명 이내의 소수로만 운영되는 만큼 집중적 학습이 가능해 호응이 높다. 이처럼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기초 학력을 키우고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일상생활부터 학습까지 지원하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 서비스와 취학준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이어가길 응원한다.





글. 김재원(작가)

-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강사
- 팟캐스트 ‘역사공작단’ 패널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날의 기록 끝없는 독립운동... 해방 그리고 분단

“미·영·중·소 4개국에 그 공동 선언을 수락한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 방송에서 히로히토 일본 천황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슬 푸르던 일본이 결국 패전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이 항복한 직접적 이유는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해방을 쟁취한 그 근간에는 36년간의 끝없는 저항과 치열한 독립투쟁이 있었음을 잊지 말자.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1920년
신년 축하 기념사진
(출처: 독립기념관)



한국인의 독립운동사는
수백 권의 책으로 정리해도
모자랄 정도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해방’은 한국인들의 끝없는
독립운동이 이루어낸 쾌거다.

신흥무관학교
(출처: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36년간 끊임없이 전개된
독립을 향한 의지

1910년 강제 병합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된 조선과 조선인은 망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강제 병합 이전부터 ‘의병’이란 독특한 형태로 활동해온 독립운동가들은 을사조약 이후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자, 만주와 연해주 일대로 이주해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북간도에는 명동학교를 설립했다. 연해주에서는 권업회와 성명회가 결성되었다. 강제 병합 초기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단체는 1919년 3·1운동 이후 다양한 임시정부로 통합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상해임시정부로 모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킨다. 비록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망국의 조선인들에게 ‘우리도 정부가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구심점이 생긴 것이다.

1920년대 접어들면서 만주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의 서막이 열렸다.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 의열단을 비롯한 독립군 부대들이 만들어졌고, 일본군과 크고 작은 전투를 하며 ‘청산리대첩’ 등과 같은 승전보를 올리기도 했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시작한 일제는 조선에 이른바 ‘민족말살통치’를 강력하게 시행한다. 그러자 국내 독립운동가들은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전개

하며 우리 문화와 정신의 연구 및 보존에 힘썼다. 국어학자들은 조선어학회를 만들어 우리 말과 글을 지켰고, 역사학자들은 한국사 연구를 통해 독립 의지를 표출했다.

이 시기 국외에서는 1931년 김구가 창설한 한민애국단이 더욱 급진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암살’이다. 1932년 이봉창의 천황 저격 미수 사건과 윤봉길의 홍커우공원 의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장투쟁을 주도하던 독립운동 세력들은 독자적인 조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중국, 소련 등과 연합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이 이어지던 어느 날, 다시 말해 제2차 세계대전 마무리 즈음 연합국 지도부는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게 된다. 겉모양새는 비록 연합국에 의한 독립일지라도, 결국 ‘해방’은 한국인들의 끝없는 저항과 독립운동이 이뤄낸 쾌거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수백 권의 책으로 정리해도 모자랄 정도니 말이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이뤄낸 해방이지만,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단체들은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찢어져야 했다.

1945년 9월 9일 서울에 진주한 미군
[출처 : 미국국가기록원(NARA)]



냉전이 만든 분단의 아픔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정치세력들은 신국가 건설 운동에 나선다.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송진우·김성수·조병옥 등 우익세력의 한국민주당, 박헌영 등 좌익세력의 조선공산당...수많은 단체들이 난립하며 각기 다른 이념을 바탕으로 동상이몽식의 신국가를 구상했다. 김구와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은 개인자격으로 입국해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신국가 건설 운동에 나섰다. 이승만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어 독자적인 정치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해방은 한국의 독립이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승전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다. 바로 ‘냉전’ 체제다. 결국 전 세계적인 냉전 분위기가 한반도 미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 모인 소련, 미국, 영국 대표는 한국 독립 문제를 논의하고, ‘독립을 위한 임시정부 수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통치안’을 결

정한다. 이후 전국은 아수라장이 된다. 전국적으로 신탁통치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열렸고, 충돌이 발생했다. 팽팽한 대립은 미소공동위원회 지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다. 각각의 사회단체들은 신탁통치와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서 그야말로 ‘정치 과잉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여운형, 김구식 등 중도세력은 ‘좌우합작운동’을 펼쳤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듬해인 1946년 2월, 북한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며 통합정부 건설의 의지가 없음을 확고히 한다. 그러자 같은 해 6월 이승만은 정읍 발언에서 “우리는 남방(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김구를 중심으로 ‘단독정부 수립 반대’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들은 ‘외국군대 철수, 임시정부 수립,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골자로 하는 선언서를 채택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분단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기에.

해방 느끼는 조선인들
[출처 : 독립기념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47년 11월 소련이 불참한 유엔총회가 열리고, 바로 이 총회에서 ‘인구에 비례하여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 유엔의 결정은 남한 단독 총선거의 명분이 되었다. 이후 1948년 5월 10일, 유엔 결의안에 따라 38선 이남에서 총선거가 실시된다. 분단으로 가는 최종 단계였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중심제를 헌법에 명시한 제헌 헌법을 공포한다. 그리고 국회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한다. 이렇듯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이뤄낸 해방이었지만,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단체들은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찢어져야 했다. 그 결과는 곧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고, 이 시스템은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다. 1945년 8월 15일은 설레는 해방의 시작임과 동시에, 갈라짐의 아픔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해방의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면서, 청산해야 할 과제를 떠안은 날이기도 한 것처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선포
[출처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45년 8월 15일은 설레는 해방의 시작임과 동시에, 갈라짐의 아픔이 동시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읽고 보고 느끼는 특별한 시니어 생활 함께 시작해요!

+ 가원시니어도서관

빛나라!



어린이도서관은 많은데, 시니어도서관은 없을까? 고양특례시에는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도서관이 있다. 2021년 9월 문을 연 가원시니어도서관은 어르신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쌓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세상을 바꾸는 시니어

시니어를 위한 열린 도서관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어느새 한국은 만 65세 인구가 20%를 넘나드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늘어난 수명만큼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으련만, 생계와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은 채 바쁘게 살아온 한국의 대다수 시니어는 일상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니어들이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공간도 턱없이 적은 편이다.

가원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가원시니어도서관은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과 관계 증진을 돕는 열린 공간이다. 대화역 4번 출구 바로 앞 건물 8층으로 올라가면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어르신들이 읽으면 좋을 다양한 책들이 서가에 꽂혀 있다. 작은 글씨를 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큰 글자 도서도 별도로 비치했는데,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큰 글자 도서를 계속해서 추가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다같이 책을 읽는 독서 모임도 이뤄지고 있다.





66

출퇴근 전후로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지요.

99

디지털 문맹, 이제는 안녕!

가원시니어도서관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문화 활동 외에도 키오스크 사용법 등 디지털 문해 교육도 하고 있다. 이른바 ‘해피테이블’로 불리는 디지털 기기로 각종 자료를 검색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한편, 도서관에 설치된 교육용 키오스크를 활용해 식음료 주문이나 무인 민원 발급, 열차 예매, ATM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화노인종합복지관에서 파견 나온 6명의 시니어가 오전과 오후반으로 활동하며 가원시니어도서관을 찾은 어르신들을 돕는다. 과거 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장세훈 어르신(일산동, 68세)은 도서관 지원 업무를 하면서 일상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전한다.

“정년퇴직 후 조금 일하다가 8년을 내리 쉬었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 시니어도서관 지원 업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세 번 정해진 시간에 나와 근무하니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도 됩니다.”

함께해요!



건강하고 ✨ 행복한 생활



가원시니어도서관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76 8층(대화동)

문의
☎ 031-916-0804

함께 문화 활동하며 활력을 더해요

홀로 긴 시간을 보내며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시니어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난 4월에는 나태주 시인의 북 콘서트, 5월에는 생태체험, 6월에는 민화부채 만들기를 진행했다. 그 밖에도 여름 원예·수경 재배, 소고놀이, 표현 활동, 풍경 그리기 대회, 건강 수제청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매월 북 큐레이션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연계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에는 7월 주제인 ‘일상의 기록, 역사가 되다’에 맞추어 압화 카드 만들기를 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의 시니어들은 손수 꽃잎을 붙여 카드를 만든 후,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하는 마음 속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니어들의 건강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로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가원시니어도서관에 더 많은 이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보고 또 보고 싶은 콘텐츠와

쓰고 또 쓰고 싶은 화장품까지!



주소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33(화정동)
문의 ☎ 031-968-7062



[주]트랙에이전시 임직원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가면 청년들의 창업 공간인 ‘28청춘창업소’가 있다. 이곳에서는 저마다의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한 고양특례시 청년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란다. 그 중 콘텐츠 제작소 (주)트랙에이전시의 도전 이야기를 들어본다.



66

28청춘사업소에는 열정 넘치는 동료 창업가들이 함께 있어 기운을 나눌 수 있어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 이창봉 대표

99

청춘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는 ‘28청춘창업소’

이창봉 대표는 이름난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청담 프리미엄 살롱의 콘텐츠 디렉터로 일하며 실력을 쌓았다. 그랬던 그가 처음 회사 문을 연 것은 2019년 2월이다. (주)트랙에이전시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콘텐츠는 통한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에이전시 스튜디오다.

이른 나이에 총괄 디렉터로 고속 승진한 그에게 창업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이미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덕에 창업 초기부터 여러 브랜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홍보 활동이 멈춰 섰고, 그의 사업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28청춘창업소’를 알게 되면서, 올해 2월부터 이곳에 새롭게 터를 잡았다.

고양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28청춘사업소’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 (예비)창업가에게 입주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센터다. 이창봉 대표는 “청년사업가들이 창업 초기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공간 임대료일 것”이라며, “공간 이용은 물론이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28청춘창업소에 입주해 든든하다”고 전했다.

오롯이 나를 돌아보는 브랜드 경험을 전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은 그에게 사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 대표는 이 기간에 자체 코스메틱 브랜드인 ‘자신(JASIN)’을 준비하고, 올해 본격 론칭했다. ‘자신’은 기획부터 제품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주)트랙에이전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다양한 품목 가운데 첫 출시 제품은 바디로션으로 정했다. 바디로션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사용하는 품목이다. ‘우정’, ‘자유’, ‘믿음’, ‘위로’라는 네 가지 콘셉트로 소비자들이 자기만의 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다. 해양심층수를 사용해 보습력과 흡수력을 높였으며, 불필요한 포장은 없애 환경 친화적인 부분까지 고려했다.

이창봉 대표는 브랜드의 성공을 넘어 사회에도 이바지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8청춘창업소’를 발판 삼아, 삶과 가치를 하나로 연결하는 청년 기업이 더욱더 멋지게 성장해가기를 기대해본다. 아자~!



여성 기업인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

+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에는 언제나 기대와 걱정이 양립한다. 그 출발이 오늘의 생계와 내일의 꿈을 모두 거는 ‘창업’이라면 걱정이 기대를 앞지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얼마든지 역전은 가능하다.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자. 도전을 준비하는 고양특례시의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성공이라는 든든한 두 날개가 되어 줄 테니.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75, 2층(덕이동)
문의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 031-924-5045
고양시 꿈마루 ☎ 031-924-5043

Mini Interview

임지은

에스엘 하이탭(SL HITTAP) 대표



의류부자재인 플라스틱 스냅 버튼은 아웃도어 및 스포츠 아동의 류에 부착되는 단추입니다. 에스엘 하이탭은 그동안 국내 스냅 버튼 시장 99% 이상을 점유해왔던 썬그립(일본산 스냅 버튼)에 맞서 우리 기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창업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업이 곧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여성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 창업이 연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에도 ‘유리 천장’이 존재하는 걸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여성 CEO가 남성 CEO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남성 창업 기업에 비해 저조한 여성 창업 기업의 성장률과 생존율이 그 이유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창업 파트너인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와 머리를 맞대고 실마리를 찾아보자.

2012년에 문을 연 센터는 신규·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의 지원은 물심양면으로 이뤄진다. 먼저, 창업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없애준다. 이후 경영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과 경쟁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창업 교육을 진행해 역량을 강화시킨다. 여기에, 입주 기업 CEO 모임과 판로 개척 지원 및 정부 지원 정책 연계 정보 제공 등 네트워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훗날 창업을 꿈꾸고 있는 여성이라면 ‘고양시 꿈마루’에도 시선을 돌려보자. 경기도 여성 창업자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곳에서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를 쌓을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양자경

달탕(DALDANG) 대표



모든 반려동물의 눈길이 닿는 사소한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유아용품과 반려동물 용품을 연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감성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보아야 매력적이고, 오래 두어도 질리지 않는 내추럴 컬러와 친환경 오가닉 소재 사용으로 건강한 상품만을 만들겠습니다.

변시연

콘텐츠랩1155 대표



콘텐츠랩1155는 세상을 바꾸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영화, 방송, SNS 콘텐츠 등 플랫폼에 한계를 넘나드는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할 예정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1인 기업 대표로서, 또 다큐멘터리리스트로서 이야기에 진정성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 담은 수제품

하마마켓
HANDMADE MARKET

에서 만나요!

수제품을 만드는 공예가들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열린 장터 ‘하마마켓’이 화정중앙공원에서 열렸다. 공방 밖으로 나와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얻은 공예가들의 표정에서 남다른 활기가 느껴졌다.



행사 일정 안내

8월	9월	10월
12(금) / 13(토) 26(금) / 27(토)	16(금) / 17(토) / 30(금)	1(토) / 14(금) 15(토) / 28(금) / 29(토)

운영시간 17:00 ~ 22:00

※ 우천 시 일정 변경 가능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고양시 수공예가들, 모두 모여라

왜 하필 ‘하마마켓’일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수제품을 뜻하는 영어 ‘Hand Made’에서 각각 단어의 앞단에 있는 ‘Ha’와 ‘Ma’를 따와 ‘하마마켓’이다. 이곳은 고양특례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수공예가들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수제품 직거래 장터다. 그 시작은 2020년이였다. 공개 공모 방식으로 판매자를 모집하며 시작된 하마마켓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소규모로 진행되다 올해부터 본격화됐다. 무대는 화정역 근처 화정중앙공원이다.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월 둘째·넷째 금·토요일에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린다.

지난 7월 8일에 열린 하마마켓에도 많은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15개 판매 부스에서는 다양한 액세서리와 아로마 제품, 디저트 등 고양특례시 수공예가들의 숨씨가 담긴 제품들을 볼 수 있었다. 바람이 선선해지는 저녁 무렵에는 마술쇼 등 시민을 위한 특별 공연도 펼쳐졌다. 정성스레 만든 수제품부터 흥미로운 문화 공연과 각종 이벤트까지 경험할 수 있는 하마마켓이 고양특례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Mini Interview



강인경 강인경갤러리 대표

2002년부터 유리 공예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시 위주로 활동하다 소비자 반응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하마마켓에 참여하게 됐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작가로서 배울 점도 많습니다. 수공예가들이 꾸준히 활동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마마켓을 계속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목 오드리하우스 대표

오드리하우스는 천연 비누와 천연 화장품 등 아로마 수제품과 다양한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입니다. 공방 밖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공예가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길을 오가다 하마마켓 홍보물을 보면 제 일처럼 반가워요. 앞으로도 하마마켓 같은 상생의 자리가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시원한 짜릿함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에는 수상 레저로 시원함과 짜릿함을 모두 잡으려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다. 워터파크형 놀이기구부터
강과 바다의 물길을 가르는 운동형 레포츠까지.
올 여름, 다채로운 수상 레저의 세계에 풍덩 빠져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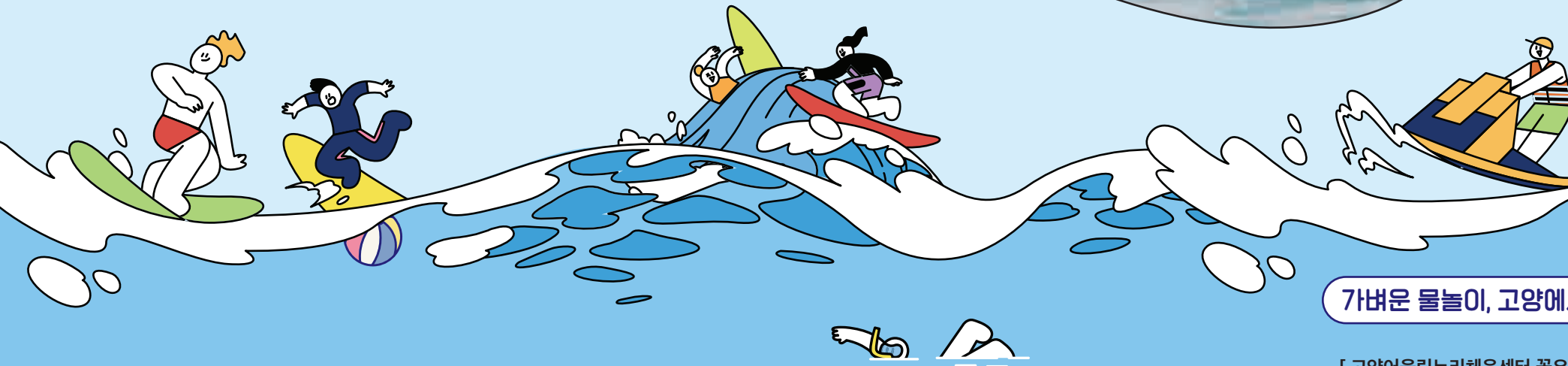
글.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일회성 체험을 넘어 일상의 취미로

여름철 특별한 놀이로 인식되던 수상 레저는 이제 일상 속 꾸준한 취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이끄는 것이 바로 ‘서핑(surfing)’이다. 양양 바닷가에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해변에 정착하는 젊은이들도 증가했다. 양양의 중광정해수욕장 한편에는 서핑 전용 해변인 서피비치가 생겼을 정도다.

산소통 없이 바닷속을 유영하는 프리다이빙도 요즘 사람들의 ‘워너비(wannabe) 취미’다. 수영복, 스노클링 수경, 프리다이빙용 핀만 있으면 프리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스킨스쿠버 대비 물속 환경을 잘 느낄 수 있어 생생한 경험을 중시하는 MZ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렇듯 수상 레저를 취미로 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수상 레저에 대한 진입 장벽은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 고양특례시에도 물놀이를 즐길만한 곳이 마련되어 있다.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 올리는 ‘바닥분수’는 아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놀이터다. 바닥분수는 어울림누리, 일산호수공원을 포함해 지역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건강한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고양어울림누리체육센터 ‘꽃우물수영장’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가벼운 물놀이, 고양에서 즐겨볼 고양!



[고양어울림누리체육센터 꽃우물수영장 이용안내]

구분	일일 입장 사용료		이용 시간		
	비회원	월 회원	평일(월~금)	토요일	일, 공휴일
어린이	3,000원	2,000원	1부 08:00~08:50 2부 12:00~12:50 3부 16:00~17:50 4부 18:00~20:50 ※ 시작 시간 15분 후 입장 불가	1부 09:00~11:50 2부 13:00~17:50	1부 09:00~11:50 2부 13:00~14:50 3부 16:00~17:50
청소년/군인	3,500원	2,500원			
일반	4,000원	3,000원			

※ 휴관일: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셋째 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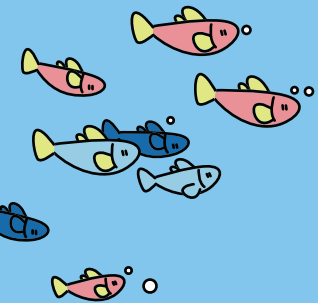
※ 타 지역 이용객은 이용료에 50%를 가산하여 이용

※ 야간 개장은 여름방학 기간에만 운영(센터 공지 사항 확인)

주소: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 문의: 고양어울림누리 ☎ 031-960-0300

MZ 세대가 사랑하는 수상 레저

수상 레저는 오래 전부터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였다. 요즘에는 개인적인 힐링과 동시에 활동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큰 사랑을 받는 모양새다. 국내의 한 오픈 마켓 사이트에 따르면, 올 4~6월 수상 레저용품 판매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핑 보드 판매량이 23%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다 다양한 수상 레저가 사람들의 취미 생활로 편입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빠지(barge)’는 전국 각지에 걸쳐 동지를 튼 수상 레저 선착장을 일컫는 말로, 수상 레저의 유행기를 맞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 빠지에서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비롯해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번지점프, 카누 등을 두루 즐길 수 있다. 이 중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는 보트가 만들어 내는 인공 파도를 이용해 좌우로 움직이며 나아가는 레포츠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여유로운 자연 속에서 놀이기구 이상의 역동적 스타일을 즐길 수 있어 수상 레저계의 스테디셀러로 통한다.



이런 곳도 있어? 박물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여름방학

+ 고양특례시 박물관

기다리던 방학이다. 하지만 고민부터 앞선다. ‘긴긴 시간,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그 물음에 고양특례시가 답한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박물관의 문을 두드려 보자. 각양각색 전시품과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등 즐거움으로 가득한 고양특례시의 이색 박물관에서 방학이 특별해진다.



동서양 화장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

동서양의 화장실 문화를 한눈에

화장실문화전시관

인류의 역사는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화장실에도 있다. 조금은 엉뚱하고 발칙하지만, 일산호수공원 내 위치한 ‘화장실문화전시관’에서는 현실이 된다. 2001년 개관한 화장실문화전시관은 이곳에서는 동서양의 화장실 문화가 변화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 내에 전시된 19종, 52점의 동양 화장실 유물이 눈길을 끈다. 휴대용 변기인 수병과 수거식 분뇨통, 휴지 대신 사용한 대나무 주걱 등은 일본의 화장실 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돼지 변소와 마통 등 중국의 화장실 유물도 이색적이다. 실물 크기의 70%로 축소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촌 화장실은 친근하고 정겹다.

서양 화장실도 빠질 수 없다. 책을 쌓아 만든 의자식 변기와 프랑스 루이 13세가 사용했던 의자형 변기, 17세기에 개발된 여성 전용 요강인 볼타르 등이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게 한다. 스마트한 관람도 가능하다. 세계의 화장실 문화를 담은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고, 2대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각국의 다채로운 화장실 관련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화장실문화전시관

INFO BOX

이용시간 10:00 ~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무료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장항동)
문의 ☎ 031-8075-4347

실물증권 보고 경제 교육까지

증권박물관

‘증권’이라 하면 왠지 어렵고 따분할 것만 같은 생각이 먼저 든다. 하지만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증권은 꽤나 매력적인 콘텐츠다.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쌓아온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를 가득 품고 있다. 이러한 증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곳이 백석동에 자리한 ‘증권박물관’이다. 증권박물관에서는 경제적 유물인 유가증권의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증권 발행 역사 등도 알기 쉽게 정리해 관람의 문턱을 낮췄다. 증권박물관은 크게 3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증권의 역사, 한국 예탁결제원 발전사, 증권 갤러리다. 전시실에는 조선시대 수표와 근현대 증권, 북한 증권 등 전 세계 증권의 400년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박물관은 국가보안시설로, 방문 시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시 해설을 원한다면 방문일로부터 7일 전까지 증권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 전시물 보호를 위해 전시실 내부 촬영을 제한합니다.

※ 허가받지 않은 카메라, USB, 노트북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INFO BOX

이용시간 월요일~토요일 10:00 ~ 17:00
(16:30까지 입장 가능)
휴관일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관람료 무료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8
한국예탁결제원 6층(백석동)
문의 ☎ 031-900-7070



증권박물관



테마별로 다양한 증권을 살펴볼 수 있는 증권박물관 전시실

글. 장성익(작가)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졸업
- 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
풀빛출판사 기획위원
- 前 생태인문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편집주간



한여름 찜통더위의 기세가 무섭다. 전력수요 급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와중에 전기·가스 요금도 올랐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에너지 절약 없이는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모양새다. 그렇다면, 병든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방법은 없을까?

찜통더위에 블랙아웃?

지난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동시에 올랐다. 일반적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가지 요금을 합해 3,755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의 여파로 국제 연료 가격이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올여름 전력수요는 예년에 견주어 가파르게 늘 전망이어서 전력수급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찜통더위는 일찌감치 시작되었는데,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전력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마저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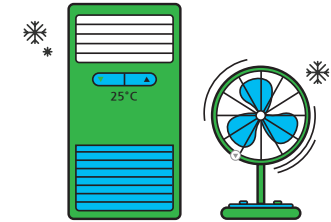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 절약 실천의 생활화가 급선무다.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의 전환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가 시민들의 녹색 생활 실천 노력도 필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다른 나

라와 견주어 볼 때 저렴한 편이라는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네 번째로 저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계는 물론 시민들도 전기를 아껴 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이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나라는 세계 8~9위의 에너지 소비국가인 데 반해,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3%나 된다.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기를 아껴 쓰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약간의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녹색시민’이 되는 지름길이다. 고양특례시 시민은 ‘고양 탄소지움카드’ 이용을 통해 그 지름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발급하기 시작된 이 카드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 포인트를 제공한다. 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포인트가 쌓이니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곧 녹색도시를 만드는 셈이다.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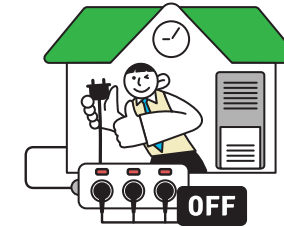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에어컨(강풍) 대신 에어컨(약풍)과 선풍기(미풍)을 함께 켜면 20~30%가량 전력이 절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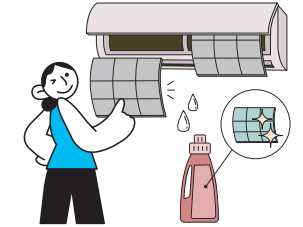
에어컨 설정 온도 26°C 유지하기

설정 온도 22°C에서 1°C씩 높일 때마다 전력 사용량이 4.7%씩 절감된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주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대기 전력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휴대폰 충전기 역시 충전이 완료되면 플러그를 뽑는 것이 좋다.



에어컨 필터 2주마다 청소하기

필터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공기 중의 먼지도 줄일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 에어컨 필터를 2주에 한 번씩 청소해주면 5~15% 가량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고양 탄소지움카드 발급

문의 고양 탄소지움카드 콜센터 ☎ 1899-6946



지역화폐



탄소포인트



NH농협
체크카드



교통카드



모바일 발급 시

현장 발급 시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고양 탄소지움카드 앱 설치 후 카드 발급

NH농협은행 영업점 및 농축협에 직접 방문해 발급



구글 플레이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고양 탄소지움카드' 검색!



최근 일부 지역에 이름도 생소한 ‘러브버그’가 떼로 출몰하며 불편의 목소리가 있었다.
벌레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곤충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벌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러브버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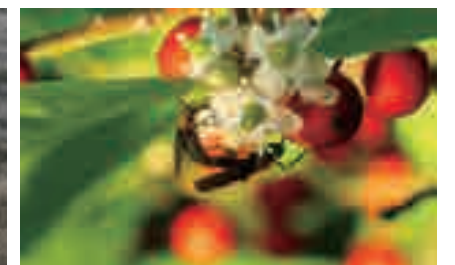
글, 사진. 이강운

- 서울대학교 농학 박사
- 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회장
-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소장
- 곤충방송국 HIB(협) 크리에이터

해충(害蟲) 아닌 익충(益蟲)

일부 지역에 ‘러브버그’로 불리는 털파리 떼가 대거 출몰했다. 털이 복실복실한 낫선 파리의 모습이지만 다소 어울리지 않은 ‘러브(LOVE)’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암수가 비행할 때나 벽에 붙어 내내 쉬고 있을 때의 모양새로 인해 이 같은 이름이 붙은 것이다. 실제로 암수가 결합한 상태로, 사랑 중인 벌레가 맞다. 생존 기간이 짧기도 한데다, 암컷을 만나기 어려운 수컷이 암컷을 한번 잡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 강력한 종족보존 전략이다. 수컷은 파악기(把握器)라는 기구를 사용해 암컷의 생식기관을 꽉 잡고 자신의 유전자만을 남기려 한다.

우리가 이를 보고 느끼는 낯뜨거움이나 혐오와 달리, 사실 털파리는 여러모로 좋은 곤충이다. 털파리의 애벌레는 낙엽이나 동물 배설물, 축축한 땅 밑에 몇 백 마리씩 모여 지내며 쌓여있던 각종 유기물을 모두 분해해 다시 흙으로 돌려보낸다. 생태계 내의 중요한 분해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소똥구리가 야생 생물의 변을 분해하고, 송장벌레가 사체를 분해해 산을 정화하고, 각다귀나 하루살이 애벌레가 계곡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자연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역할과 같다. 만약 이런 곤충 분해자가 없다면 깨끗한 계곡과 향기로운 산은 온데간데없이, 세상은 썩는 냄새로 진동할 것이다. 털파리는 다 자라 어른벌레가 되면 꽃가루 매개충으로 식물의 수분(受粉)을 돕는 한편, 거미나 새, 잠자리 등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사람의 건강과 농작물은 물론이고, 동물에게까지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곤충(유익충)이다.



살충제 없이 생태 특성 이용해 제거 가능

그런데 털파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우리 눈에 뵈는 이유는 뭘까.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렇다. 곤충은 자기 몸 안에 주변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생체 시계를 갖고 있다. 털파리도 예외는 아니다. 번데기는 원래 5월이면 날개를 달고 나와야 하는데, 혹독한 가뭄으로 인해 흙 속으로 몸을 파고 들어가 휴면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다 6월 말 장맛비가 내리고 때 이른 폭염까지 찾아오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모든 번데기가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연속적인 이상 기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털파리가 아무리 자연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이로온 곤충이라 해도,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부득이 제거가 필요하다면 살충제 없이도 생태 특성을 이용한 해결책이 있다. 털파리의 비행 속도는 시속 8~15km/h로, 반사신경이 빠르기 때문에 맨손으로 때려잡기는 힘들다. 반면, 날개는 약해 비행 능력이 떨어진 다. 이 점을 이용해 ‘러브버그’에 물을 뿌려 날개를 젖게 만들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털파리를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끝. 이제 뚫린 방충망을 손질하고, 창틀 아래쪽 빗물 배수용 구멍을 막으면 털파리의 가택 침입은 없을 것이다.

곤충학자로서 이 같은 글을 쓰는 가장 큰 즐거움은 대중들에게 곤충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를 높여 혐오를 줄이는 것 이리라.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벌레 ‘러브버그’ 덕분에 곤충과 벌레는 ‘징그럽다’, ‘불결하고 위험하다’는 통념을 깰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곤충 덕분이다.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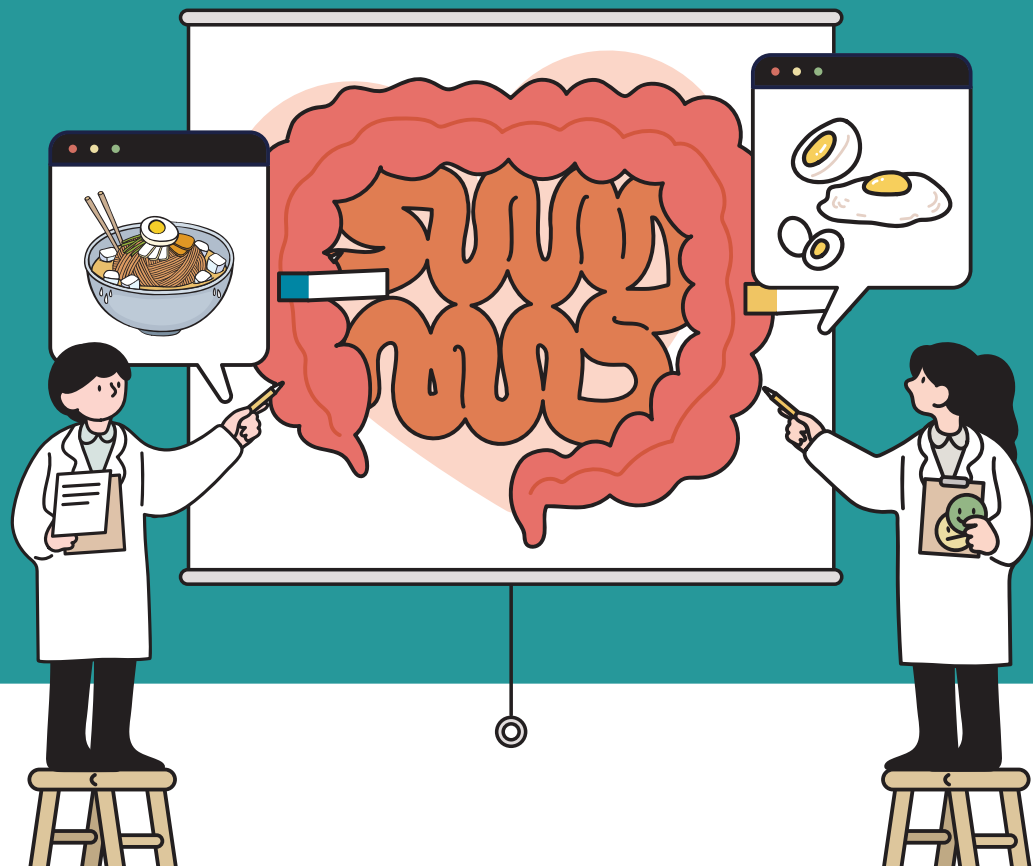
'살모넬라균 감염'을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

최근 한 남성이 냉면을 먹고 난 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원인은 '살모넬라균'으로 밝혀졌다. 주로 달걀을 통해 전파되는 살모넬라균은 혈관으로 침투해 패혈성 쇼크를 일으키는 무서운 세균이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살모넬라균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질병관리청



여름철 불청객 '살모넬라균' 예방하려면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Non - typhoidal Salmonella)’. 이름부터 섬뜩한 살모넬라균은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장 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다른 오염균과 달리 냄새와 맛 등으로 전혀 구별할 수 없고,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살모넬라균의 번식이 활발해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6,838명 중 75% 정도가 7~9월인 여름철에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살모넬라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되거나 감염된 음식물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다. 주로 닭이나 오리나 같은 가금육, 소고기, 달걀, 우유 등 우리 식생활에 맞는 식품에서 살모넬라균이 잘 번식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도마, 칼, 주방기구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교차오염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달걀을 만진 손으로 다른 음식을 만지면 살모넬라균 전파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잊지 말자.

안타깝게도 살모넬라균에 감염됐다면, 감염 1~3일 후 경련성 복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행히도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대부분 5~7일 후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고령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등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01

손 씻기
조리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04

세척·소독하기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관리하기



02

익혀 먹기
식재료(육류는 75℃, 어패류는
85℃)로 **(1분 이상)** 익히기



05

구분해서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을
구분하여 **(칼·도마)** 사용하기



03

신선한 식품 구입하기
계란, 육류 등 **(신선한 제품)**
으로 구입하기



06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 식품은 **(5℃ 이하)**
냉동 식품은 **(-18℃ 이하)**



‘원숭이두창’ 제대로 알기 증상 및 예방법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에도, 재유행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숭이두창(Monkeypox)’이란 새로운 전염병이 확산되며, 이 또한 대유행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숭이두창은 어떤 질병인지, 그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은준석(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역학조사관)

원숭이 두창의 주요 증상

원숭이 두창 증상은 감염 후 5~21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보통 2~4주간 지속된다.

증상의 시작

두통, 발열, 근육통
림프절 부종, 피로감

1~3일 후

얼굴 중심으로
신체 발진 증상

구진성 발진

동그란 붉은 반점
발진 발생

2~4주간 지속

발진 등
임상증상 지속

‘원숭이두창’의 출현, 그리고 확산

원숭이두창은 원래 아프리카 밀림 부족에게서 관찰되던 병으로, 그 지역 풍토병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었다. 그런 원숭이두창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 5월부터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미국 등의 국가로 확산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WHO는 원숭이두창 환자 중 3~6%가 사망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 새로운 전염병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은 심각한 증상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원숭이두창은 어떻게 전파되나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된 모체에서 태반을 통해 태아의 수직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피부, 체액, 점막 병변, 혈액에 직·간접으로 접촉하거나, 체액 또는 병변이 묻은 옷이나 솜 등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점막(눈, 코, 인두, 폐포)을 통해 비말 형태의 직접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이후 증상발현 과정 및 치료제 현황

원숭이두창에 감염되면, **5~21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38℃ 이상의 급성 발열 증상을 보이고, 두통, 근육통 및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1~3일 후에는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이 나타나며, 원심형으로 신체 다른 부위(특히 사지)로 확산된다. 림프절(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종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고, **보통 2~4주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 증상은 수두와 양상이 비슷한데, 피부의 색깔과 모양이 변하는 ‘발진’으로 시작해 점차 딱딱해지는 ‘구진’의 단계를 거쳐 물이 차는 ‘수포’로 발전한다. 이후 하얗게 흐려지면서 농이 차

는 ‘농포’가 되었다가 딱지가 앉는 ‘가피’ 단계로 진행된다. 가피가 탈락할 때까지는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최신 발표에 따르면 감염자들의 생식기나 항문 주위에서 초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감염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회복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상용화된 전용 치료제는 없는 상태다. 다만, 두창 관련 치료제가 국외에 4종 있고, 이 중 2종은 국내에 비축해둔 상태며 추가적으로 두창 치료용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를 지난 7월에 들여왔다.

개인위생 철저...증상 있다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상담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점막을 통한 접촉 전파가 주된 감염 통로인 만큼,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를 접촉하면 안 된다.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에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물건 등에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설치류(다람쥐 등), 영장류(원숭이 등), 동물 사체 등과의 접촉을 피하고, 이들의 야생 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발생지역 방문 후 발열이나 기타 발진 등 관련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원숭이두창은 밀접한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이므로 일상적 상황에서의 전파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심상치는 않으니, 당분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도서관으로 떠나는 여름 북캉스

여름이 좋은 이유, 방학과 휴가가 있어서 아닐까. 황금 같은 휴식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고양특례시 지역 도서관을 방문해 보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 누구나도 책을 읽으며, 동시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름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자료. 고양특례시 도서관센터



2021 박규빈 작가의 방(작가 도슨트)

책을 통해 읽고, 생각하고, 나누다

삼송도서관에서는 2022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인 ‘나를 위한 글쓰기 2’가 펼쳐진다. 이문재 시인과 박현희 강사의 진행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2 도서관 지혜 학교 ‘신화 속 삶의 지혜’도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민승기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와 함께 일상에서 인문학을 향유하는 시간이다.

백석도서관의 ‘그림 인문 산책 시즌2 : 그림책의 숲’은 시즌1의 서양미술사에 이어, 강무홍 아동문학작가가 흥미로운 그림책의 세계로 인도한다.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어 휴가지 등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책을 읽고 난 뒤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면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대화도서관에서는 지난 7월부터 한 권씩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8월의 책은 『충실한 마음』(델핀 드 비강 지금, 레모)이며,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일산도서관 역시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수어를 통한 ‘손으로 만나는 그림책’, 도서관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상상해보는 ‘앉아서’, 책을 매개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떠오르는 심상을 글로 쓰는 인문학 프로그램 ‘불안의 시대를 건너는 법’이 시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책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여름방학

아이들에게 책과 친구가 된다면, 방학은 한 뼘 더 자라는 성장의 시간이 된다. **주엽어린이도서관**에서는 8월 27일과 9월 14일 2회에 걸쳐 『바삭바삭 갈매기』 전민걸 작가의 그림책 전시회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열린다. **행신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 영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6~7세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잉글리쉬 잼잼’과 ‘영어동화친구들’ 프로그램이 그 무대다.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도 알차다. **가좌도서관**에서는 ‘도레미 팡팡! 신나는 그림책 놀이터’로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에서 즐기는 ‘북캉스’는 시원한 공간에서 마음의 양식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양특례시 지역 도서관의 다채로운 여름 프로그램은 울여움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배우는 수어



길위의 인문학 - 퇴근 후 기차길 옆 인문학



2022 이소영 작가의 방(작가 도슨트)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 바로 가기

덕양구도서관과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8(화정동)
☎ 031-8075-9215

일산동구도서관과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마두동)
☎ 031-8075-9038

일산서구도서관과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대화동)
☎ 031-8075-9130

도서관 여름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삼송도서관

주소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73(삼송동)
휴관 매월 1, 3번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 031-8075-9360

[2022 길 위의 인문학]

나를 위한 글쓰기2 시즌2

일시 7. 20. ~ 10. 12.
 매주(수) 19:30~21:30(총 13회)
대상 성인 30명
진행 이문재 시인, 박현희 강사
장소 교양교실, ZOOM, 네이버 카페
신청 7. 5.(화) 10:00~



[2022 도서관 지혜학교] 신화 속 삶의 지혜

일시 8. 2. ~ 10. 18.
 매주(화) 10:00~13:00(총 12회)
대상 50세 이상 신중년 20명
진행 민승기(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장소 교양교실
신청 7. 19.(화) 10:00~



백석도서관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8(백석동)
휴관 매월 1, 3번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 031-8075-9090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그림 인문 산책 시즌 2 : 그림책의 숲

일시 8. 4. ~ 9. 22. 매주(목) 10:00~12:00(총 8회)
대상 성인 40명
진행 강무홍(아동문학 작가) ZOOM 진행
신청 7. 13.(수) 10:00~



행신어린이도서관

주소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181번길 42(행신동)
휴관 매월 2, 4번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 031-8075-9278

[여름방학 영어동화읽기] 잉글리쉬 잼잼

일시 8. 2. ~ 8. 16. 매주(화) 16:30~17:30(총 3회)
대상 6~7세 12명
진행 김수정(영어독서지도 강사)
장소 동아리방
신청 7. 12.(화) 10:00~

[여름방학 영어동화읽기] 영어동화친구들

일시 8. 2. ~ 8. 16. 매주(화) 15:00~16:00(총 3회)
대상 초등 1~2학년 12명
진행 김수정(영어독서지도 강사)
장소 동아리방
신청 7. 13.(수) 10:00~



주엽어린이도서관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04(주엽동)
휴관 매월 2, 4번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 031-8075-9168

[그림책 전시 연계 프로그램] 전민걸 작가의 방

일시 전시회 8. 16.(화) ~ 9. 18.(일) 10:00~18:00(휴관일 제외)
 프로그램 8. 27.(토) ~ 9. 14.(수) 15:00(총 2회)
대상 초등 저학년 15명
진행 전민걸(그림책 작가)
장소 꿈지락꿈지락 그림책 갤러리, 어울림터
신청 8. 16.(화) 10:00~



가좌도서관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16(가좌동)
휴관 매월 2, 4번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 031-8075-9380

[여름방학 특강] 도레미 팡팡! 신나는 그림책 놀이터!

일시 8. 3. ~ 8. 24. 매주(수) 14:00~15:00(총 4회)
대상 초등 1~2학년 15명
진행 강미경(독서지도사) ZOOM 진행
신청 7. 13.(수) 10:00~



대화도서관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대화동)
휴관 매월 1, 3번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 031-8075-9130

[열두 달 독서학당 : 독서토론]

8월 - 충실한 마음
일시 8. 26.(금) 10:00~12:00(총 1회)
대상 성인 10명
진행 권인걸(독서문화기획자, 독서 커뮤니티 <우리의 대화> 대표)
장소 ZOOM
신청 8. 12.(수) 10:00~



일산도서관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586-65(일산동)
휴관 매월 1, 3번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 031-915-1313

[평생학습] 손으로 만나는 그림책

일시 7. 7. ~ 10. 13.
 매주(목) 10:00~12:00
대상 성인 15명
진행 권오현(나눔연극 대표, 연극심리상담사)
장소 나눔터2
신청 6. 15.(수) 14:00~

[생활문화 '서' 프로젝트 시즌2] 앉아서

일시 7. 13. ~ 11. 30.
 격주(수) 10:00~12:00
대상 시민 10명 내외
장소 나눔터2
신청 6. 15.(수) 09:00~

[길 위의 인문학] 불안의 시대를 건너는 법

일시 8. 11. ~ 10. 27.
 매주(목) 19:00~21:00(강의 10회, 후속모임 1회)
대상 성인 20명 내외
진행 이권우(도서평론가)
장소 나눔터2
신청 7. 15.(금) 10:00~

고양특례시 도서발굴단의 추천 도서가 도착했습니다



패싱

저자 넬라 라슨 | 출판 문학동네
 #야무진_세미집순이가 추천합니다

‘만약 당신이 남편마저도 모르게 흑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데, 그가 극심한 인종주의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종차별이라는 상황 앞에서, 동일 인종이지만 다른 삶을 선택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기후변화 ABC

저자 다비드 넬스, 크리스티안 제러 | 출판 동녘사이언스
 #무채색_레드벨벳이 추천합니다

제일 쉽고 빠르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던 강의가 있었다. 바로 소비 줄이기. 내가 불필요한 소비만 한두 번 줄여도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간단하지만 당신이 느낄 기후위기에 대한 모든 것, 이 책 안에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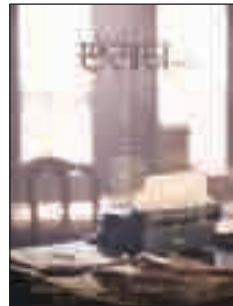
고양특례시로 떠나는 시원한 문화 바캉스

본격적인 휴가의 달이 시작된다. 더위를 피하며 공연도 즐기는 문화 바캉스를 계획하면 어떨까? 한여름을 문화의 향기로 가득 채울 고양특례시의 문화 공연을 소개한다.



홈페이지 www.artgy.or.kr
문의 ☎ 1577-7766

1



2



3



4

5



1

뮤지컬 <팬레터>

뮤지컬 <팬레터>는 시대적 분위기와 예술가들의 삶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모던 팩션(Faction) 뮤지컬이다. 1930년대 경성, ‘팬레터’를 계기로 문인들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한 작가 지망생의 성장을 그렸다. 문학을 사랑하고 열망했던 경성의 문인들 모임 ‘구인회’에서 모티브를 얻어 당시 문인들의 예술과 사랑을 이야기 하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치유와 위로를 전한다.

일시 8.13.(토) ~ 8. 14.(일)
토 14:00, 18:30 / 일 14: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어울림극장(성사동)
티켓 VIP석 9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2

빈센트를 위하여 <킬리만자로의 표범>

전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삶의 여로를 걷는 순례길 렉처 콘서트! 10년간 62,450점의 유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러빙 빈센트>의 영상과 아름다운 앙상블의 선율로 최대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뮤지컬 배우 노윤과 해설 전원경, 아르츠 앙상블이 함께하며 ‘킬리만자로의 표범’ 등 네 개의 해설 테마로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만나 볼 수 있는 고품격 무대이다.

일시 8.20.(토) 16: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1층석 30,000원 / 2층석 20,000원

3

뮤지컬 국립창극단 <귀토>

국립창극단 최고의 흥행작 <변강쇠 집 짝고, 옹녀>의 고선웅·한승석 콤비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여 더욱 탄탄해진 호흡으로 또 하나의 히트 창극 <귀토>로 고양 관객을 찾아온다. 우화 판소리 ‘수궁가’에 오늘날의 시대상을 투영하여 한층 재기발랄한 무대를 선사하며 전통 판소리의 힘으로 이야기를 박진감 넘치게 이끌고, 우리 소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시 8.20.(토) ~ 8. 21.(일)
토 17:00 / 일 15: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마두동)
티켓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4

2022 아람누리 마티네콘서트 <김현수의 스윗 클래식 III>

서정성을 극대화한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간주곡과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까지 서정적인 분위기의 작품들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의 협연이 함께하여 한여름의 낭만 속으로 떠날 수 있는 여행 같은 무대를 선사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 오케스트라인 코리아콥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국내외에서 크게 활약하며 많은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에스트로 김광현이 지휘한다.

일시 8.25.(목) 11: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전석 25,000원
※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류장현 안무 신작 <코놀로그>

국립극단 청소년극 <죽고 싶지 않아>, 아르고 파트너 <산양의 노래> 류장현이 코로나 시대의 독백(Covid-19 + Monologue)을 테마로 신작 <CONOLOGUE>를 발표한다. <CONOLOGUE>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드리운 것들을 탐구하고, 그에 대한 예술가의 응답이 될 것이다. 이번 작품은 ‘EP앨범’의 각 트랙처럼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된다. 각각의 트랙별로 다양한 컬러의 사운드와 함께 펼쳐질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객석의 관객에게 특별한 감각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8.27.(토) ~ 28.(일) 토 19:00 / 일 17: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마두동)
티켓 전석 30,000원

공연, 전시부터 작지만
문화예술교육까지
시민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공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정 게시판

2022년 『고양 청년동지론』 3분기 신청자 모집



지원대상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② 소득기준은 (미혼)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③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추천(최대 5천만 원) 및 이자지원(연 2%)

대상가구 3분기 50가구 (연 200가구,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접수기간 2022. 7. 1. ~ 2022. 9. 30. (92일간)

접수방법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사전상담(필수) 후 방문접수

직접방문 평일 09:00 ~ 18:00, 토·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협약은행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9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접수장소 고양시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오피스텔 303호

제출서류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공고문 “붙임” 서식 참고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고양시장배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 개최 알림

대회기간 2022. 8. 12.(금) 09:00 ~ 18:00

장소 고양실내체육관(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내용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3개 종목: 카트라이더, 피파온라인, 리그오브레전드), 고양시민 참여

이벤트 행사 및 각종 체험 부스 운영 등
문의 고양시 문화예술과 ☎ 031-8075-3374

새롭게 만나는 행주산성! 新행주산성 완전정복!!

「권율장군과 행주대첩」 역사 프로그램

기간 2022. 7. 15.(금) ~ 10. 30.(일)
운영 매주 수, 목, 금, 토, 일 주5일
장소 행주산성, 충의정
대상 누구나 선착순 20명
시간 - 10:00 ~ 11:00 행주산성 대첩문 ~ 충의정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 11:00 ~ 13:00 행주대첩 배우기, 신기전 만들기



「살구꽃피는 행주」 생태 프로그램

기간 2022. 7. 15.(금) ~ 10. 30.(일)
운영 매주 수, 목, 금, 토, 일 주5일
장소 행주산성, 충의정
대상 누구나 선착순 20명
시간 - 15:00 ~ 16:00 행주산성 대첩문~충의정 생태해설사 해설
- 16:00 ~ 17:00 자연공예, 새 관찰 등

예약 고양시청 통합예약사이트(체험, 견학)

요금 3,000원(재료비)/인

문의 고양시 관광과 ☎ 031-8075-3404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제 신청 안내

신청내용 지역주민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신청기간 2022. 8. 16.(화)까지

신청대상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대상 :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신청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

선정방법 시설물 관련 부서에서 위험도, 설치년도 등을 검토하여 대상 선정

점검방법 국가안전대진단 기간(8. 17.(수) ~ 10. 14.(금)) 내 전문가 현장방문 후 육안점검하여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하도록 안내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고양시 시민안전과 ☎ 031-8075-3045

의정 게시판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개원



고양시의회(의장 김영식)는 7월 8일(금) 제9대 고양시의회 원 구성을 위한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향후 2년간 고양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 및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의장선거에서는 재적의원 34명 중 3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 결과 김영식 의원이 총 32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조현숙 의원이 투표 참여인원 34명 중 32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5개 상임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 문재호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송규근 의원, 환경경제위원장 손동숙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김해련 의원,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단 선출 후 실시된 개원식에서 김영식 의장은 “사상초유 여야동수 의회라는 민심의 뜻을 받들어 협치와 상생을 의

장역할의 기준으로 삼고 조화로운 의회 운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실행력 있는 의회, 시민의 다채로운 요구를 정책에 담아 실현하는 의회, 집행부와는 건강한 협력과 건전한 견제·비판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의회가 되어 시민의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엄마의 ‘아리랑’

글. 이용미(덕양구 토당동)

반 평 남짓 되는 텃밭에 상추, 고추, 가지, 토마토 등을 심었습니다. 생전에 엄마가 가꾸던 작은 텃밭을 이제 딸이 이어받았습니다.

아기 고양이 발톱만 한 열매가 매달리더니 이제 제법 자신들의 모양을 드러냅니다. 엇그제 처음으로 고추를 수확해 된장에 찍어 먹으며 그리운 엄마가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텃밭을 가꾸며 그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때론 ‘아리랑’을 불러주며 정성껏 그들과 소통했습니다.

이제 텃밭 앞에 서면 돌아가신 엄마의 생전 모습과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세월이 우리 엄마를 데려갔지만 제 마음의 엄마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엄마의 향기와 추억이 가득한 텃밭에서 저는 가슴 따뜻한 엄마의 미소를 떠올리며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저와 엄마의 사랑을 이어주는 저 조그만 텃밭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열매가 튼실하게 익어갈수록 엄마를 향한 그리움도 익어가고 제 마음은 더욱 넉넉하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민선8기, 시민이 바라는 고양은?

108만 고양특례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해가기 위해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민선8기 고양특례시에 바라는 제안, 응원 등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 고양소식 9월호에 수록되시는 분께는 소정의 고양페이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게재될 본인 사진,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고양소식 이메일 (gysosik@naver.com)로 발송
응모 기간 8월 1일 ~ 8월 17일

‘고양원픽’ 4행시 챌린지

모바일 고양소식지의 새 이름 ‘고.양.원.픽’으로 4행시를 지어주세요. 시민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뽐내주세요. 당첨자는 추첨 후 고양원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10분에게 소정의 고양페이를 보내드립니다.

예) 고 양의 웹진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양 질의 콘텐츠가 가득하네요
원 했던 고양시 웹진을 자주 볼 생각에
픽 쓰러질 것 같이 기뻐요!

참여 방법 고양원픽 4행시,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엽서 혹은 고양소식 이메일 (gysosik@naver.com)로 발송
응모 기간 8월 1일 ~ 8월 15일

고양 사랑방

시, 산문, 수필 등 시민의 실력을 맘껏 펼쳐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고양페이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에세이, 기행문, 독후감, 사진, 만화 등 제한 없음
원고 분량 A4 용지 이내(시, 만화 등은 적정 분량)
보내실 곳 이메일 : gysosik@naver.com
우편 :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보내주신 작품의 오타, 비문 등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양소식>은 어떠셨나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더 알찬 <고양소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온라인 애독자 참여 바로가기

고양시와
소통해요!

오늘 고양시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양한 소통 채널로 생생한 고양시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고양원픽



시 홈페이지



고양TV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우리 지구를 위해 저탄소 생활 실천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쓰는 플러그는 뽑고, 고효율의 가전기기 사용

멀티탭을 사용하지면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비전력의 약 10%에 이르는 대기전력을 간단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름엔 26℃ 이상, 겨울엔 20℃ 이하로 유지하기

냉난방 온도를 1℃ 조정할 경우 연간 110kg CO₂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샤워 할 때는 물 절약형 샤워캡

물 절약형 샤워캡 사용 시 평소 쓰는 물의 2/3가 절약되며 수자원 절약은 곧 에너지 절약입니다.



세탁기, 다림질은 한번에 모아서 하기

특히 다리미는 자체 흡수열이 크기 때문에 적은 양을 다리면서 자주 사용하면 에너지 낭비가 큼니다.



전구는 고효율 전구, 형광등은 고효율 형광등

일반 전구를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면 65% ~ 70%의 절전이 가능하며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20% ~ 35%의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cpoint.or.kr) 바로가기

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자!



시민이 제안하고, 강의하고, 함께 배워요! 고양시민대학 2기 학습자 모집

고양시민대학은 이론과 학습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장학습과 소통 및 체험으로 이뤄지는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강좌는 누구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구분	대학교 캠퍼스	공유체육관 캠퍼스	우리동네 캠퍼스
강좌	생애후반부 재설계	생활체육	시민교양
프로그램	5060 신중년대학	시민생활 체육교실 (학교 체육시설 공유)	시민강사 제안강좌
교육장소	중부대, 항공대, 농협대, 동국대	향동고, 화정초, 동산초 백양초, 화수고, 한수중 정발고, 백석초	고양관광정보센터 등 14개 캠퍼스
인력풀	대학교수진	생활체육지도자	시민강사 약 60명
신청대상	50세 ~ 65세 시민	일반시민	일반시민
모집인원	7과정 (약 200명)	32강좌 / 20명 (약 600명)	약50강좌 / 20명 (약 1,000명)
모집시기	7. 25.(월)~ 8. 15.(월)	8. 15.(월) ~ 8. 26.(금)	8. 29.(월) ~ 9. 16.(금)
강좌운영	8월 ~ 12월	9. 1.(목) ~ 12. 31.(토)	9. 17.(토) ~ 10. 21.(금)

신청방법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내 수강신청

수강료 무료(선착순 마감)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고양in 행복인

2022 AUGUST Vol.354

받는 사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앞



<고양소식>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을 표시하여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독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고양페이를 보내드립니다.

1. <고양소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고양소식>을 어떤 경로로 구독하고 계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정기구독 우편 배송 ② 고용원픽 모바일
③ 이메일 뉴스레터 ④ 시청,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⑤ 다중이용시설(쇼핑몰, 병원, 은행 등) ⑥ 기타()

3. <고양소식> 구독 후 시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4. <고양소식>에서 가장 즐겨보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시정에 관한 정보 ② 전문가 칼럼
③ 인터뷰 등 사람들의 이야기 ④ 관광지 및 문화행사 소개
⑤ 문화행사 및 도서관 정보 ⑥ 독자참여
⑦ 기타()

5. 지난호 <고양소식>을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전반적 느낌, 구체적 코너 등), <고양소식> 편집실에 바라는 점 등을 적어주세요.

고	원
양	파

귀하의 성별, 연령대, 연락처를 표기해주세요.

성함: 성별: (남/여) 연령: (예시, 30대, 50대 등)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